

항일 독립군의 무기를 생산한 '체코' 최강의 MD 레이더까지 노린다!

지난 2008년 9월 주한체코대사로 임명된 야로슬라브 올샤(Jaroslav Olsa, jr.) 대사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가득한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그는 체코가 전통적으로 무기 생산 국가였고, 레이더 기술이 매우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코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해를 맞은 1월 13일,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를 만나 체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영 기자 sisacolumn@gmail.com

외교안보부터 문학까지 섭렵한 인재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무기 수출 및 군·민간 겸용 물품 관련 체코 사절단 일원과 대표를 지냈으며 1994년에는 르완다와 우간다에 파견한 체코 인도주의 사절단 대표를 맡기도 했다.

또 파푸아 뉴기니, 브루나이 다루살람과의 외교관계 설립을 위한 사절단(1995), 리비아-몬로비아와의 외교관계 설립을 위한 사절단 대표(1998)도 역임했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책임자로서 50여 개 국가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야로슬라브 대사는 아프리카 및 아시

아 역사, 문화, 문학 관련 서적 및 기사를 쓴 저자로도 유명하다. 특히 SF 문학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집필 활동을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 뉴오리엔트, 세계문학,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분야와 체코어 및 외국어로 된 다양한 백과사전 작업에도 참여했다.

폴란드 작가가 쓴 정치 SF 소설과 SF 문학 백과사전, <SF세계>(25여 개국의 SF 소설 선집), <기우사>(근대 짐바브웨 소설 선집), <짐바브웨 석상의 4세대>(짐바브웨 주요 예술 형태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은 책),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역사>(선사시대부터 2008년까지의 남아프리카 역사를 간결하게 집필한 책) 등 여러 권의 장편을 출간했다.

체코는 유럽의 심장 같은 존재

우선 체코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체코가 유럽에 심장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흔히 중부유럽 지역에서 '산업의 허브'라고 불렀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중부유럽의 산업생산 중심이었던 곳이지요.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18년도까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이 제국은 유럽의 심장을 구성한 복합적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체코의 위치는 그 제국의 산업허브였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국가입니다. 또한 작은 나라이지만 산업생산이 활발해서 한국처럼 무역 국가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기관차, 자동차, 전투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또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참여 국가입니다. 최근에 두산그룹이 체코의 스코다 파워(Skoda Power)를 인수했습니다.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은 체코의 스코다 파워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전소의 터빈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두산중공업은 GE, 알스톰 등 세계적인 발전설비 업체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2009년 09월 14일 스코다홀딩(Skoda Holding)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의 스코다그룹의 발전설비 전문업체인 스코다파워의 지분 100%를 4억5000만 유로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체코 업체의 획득은 한국을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건설국가로 만들기 위해 마지막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AE) 원전 생산에 스코다파워가 참여할 것입니다. 이 체코 업체는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인 터빈을 생산합니다.

방위산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체코는 전통적으로 무기 생산국가입니다. 소화기에서 군용기 혹은 아음속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생산합니다. 또한 대규모 IT산업이 체코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체코가 1980년대만큼 최대무기 수출국은 아니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로슬라브 올샤

1964년 8월 4일 출생했다. 부인 미하엘라 보프코바(Michaela Vovkova, 1972년생, 외교관)와의 사이에 1남 세바스티안(Sebastian, 2007년생)을 두고 있다.

1985부터 1995년까지 프라하의 카렐대학에서 아랍·아시아·아프리카학을 전공했다. 1988년에는 튀니지에서 실용언어기관인 부르기바에서 아랍어를 공부했다. 또 1990년부터 1992까지 암스테르담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비교유럽학을 배웠다.

인터호텔 알타 조명 기사(1983, 프라하), 수리수학설비 연구소 연구원(1984, 프라하)으로 근무했으며 프리렌서 통·번역가(1985, 프라하)로 활동하기도 했다. 1990년 3월부터 1992년 1월까지 SF 월간지인 <KARE>를 설립해 부편집국장을 지냈다.

1992년 외무부에 들어온 후 중동·남아프리카부서 서기관(1992)을 거쳐 1993년에는 본드라(A. Vondra) 외무부 제1차관의 무기규제와 수출 및 관련 분야 고문으로 근무했다. 이후 아프리카부서 국장(1996), 중동·아프리카부서 과장(1997), 아프리카부서 국장(1998)을 역임하고 1999년 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앙골라, 말라위, 상투메 프린시페 대사를 지냈다.

2006년 정책기획부 과장과 정책기획부 국장대리를 역임한 후 2008년 9월 주한체코대사로 임명됐다.



2008년 9월,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창하고 있다.

지난 10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이 체코 무기를 이용했습니다. 1930년대, 2차대전 전에는 체코의 무기생산량이 전 세계 무기 수출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의 아프간 군사는 체코 권총만 이용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군사는 모두 체코의 무기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전통과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체코는 무기 수출로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관계는 매우 밀접

199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옛 체코와 새로운 체코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체코슬로바키아 이름 분쟁'이라고 하더군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름 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름 전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은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1918년 독립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인 두 나라가 합친 이름입니다. 오히려 1920년대 때 체코슬라바키아라는 이름을 싫어한 시민들 때문에 이름 갈등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3년 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갈라지면서 당연히 체코 지역은 체코라는 이름을 유지했고 슬로박은 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한 나라이었을 때 갈등이 더 심했다고 봅니다. 이름 갈등보다는 정체성의 이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관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언어는 똑같지 않지만 유사해서 체코 인구 99%는 슬로바키아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교관이나 외무부도 체코-슬로바키아 관계

를 쉽게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슬로바키아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밀접하고 깊은 관계입니다. 한 나라였을 때는 수 만 명의 체코 사람들이 슬로바키아 사람들과 결혼하고, 슬로바키아 사람들도 체코와 결혼했습니다. 많은 점에서 아직도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관계가 아주 깊어서 외교관계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가깝습니다.

체코와 한국은 임시정부 때 최초 접촉

체코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오랫동안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했다가 지난 90년 3월 공식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에 체코선수단이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치·경제적 관계까지 풀리면서 국교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교 관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식 수교 이전부터 체코와 한국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체코는 1918~1919에 설립됐습니다. 이때 체코의 제일 강력한 군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약 6만 명의 체코군이 소련의 공산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상해에 설립된 한국 임시 정부와 접촉이 처음됐습니다. 이 첫 만남 이후 체코 군사와 한국 임시정부 대표들(예를 들어 이승만)과 많은 접촉과 소통이 유지했습니다. 한국 대표들은 체코 장군들과 만났고 장관들도 한국 임시 정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체코군 총사령관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 대통령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색 꽃병에 한국 독립을 위해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글도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체코와 한국의 외교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요. 1920년대에 중국에서 유명한 전투(청산리 전투)를 치른 한국 전사들도 체코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체코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당연히 소련을 따르게 됩니다. 이념을 공유하게 돼서 북한과 1948년에 외교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념적 차이 때문에 그때는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불가능했지요.

하지만 체코는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40년대 한국의 군사 정권(1945~1948, 미군정기)에 활동하던 법률고문 중 한 명은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반공산당이어서 미국으로 탈출했다가 한국으로 온 것이죠.

또한 체코 군인들이 한국 전쟁 때 영국이나 미국군과 함께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 조종사들 중 최우수의 조종사로 알려진 사람도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체코에서는 한국학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도 대한민국의 존재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다 알았습니다.

올림픽 이후 변화가 생기면서 외교관계가 설립됐고 좋은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요. 한국은 유럽국가 외에 체코의 네 번째로 큰 무역국가입니다. 1위는 중국, 미국, 일본, 그다음엔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체코에 투자하는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는 프랑스보다 2배나 많습니다.

2010년은 수교 20주년이 됩니다. 기념행사 등이 열릴 것 같은데요.

20주년을 맞이하여 공연 시리즈를 열 계획입니다. 체코의 유명한 교향악단이 서울로 올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하벨 전 대통령이 쓴 연극 작품도 서울에서 공연할 예정이고 책도 출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코-한국의 1세기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MTCR · COCOM · WA 적극 지지

지난 부시 정부의 정책을 보면 체코가 폴란드와 함께 동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MD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현재 오바마 정부에서 MD 문제가 유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11년간 체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 국가였습니다. 체코는 NATO 회원 국가로서 유럽 국가나 미국 등 NATO의 우방 국가들과 안보 관련 관심사항에 대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NATO의 안보전략에 있어 유럽연합(EU)과 체코는 대량 파괴무기(WMD) 확산 또는 중장거리미사일(IRBM) 확산이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7년 초에 미국 측으로부터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협력에 대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체코와 미국 측 전문가들의 협의 후 미국 미사일 방어기지를 체코에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오바마 정권이 새로 들어온 상황에서는 MD에 대한 개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은 있겠지만, NATO 회원 국가로서 같이 일할 준비는 돼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2009년 5월 방한한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가 주아프리카 체코 대사로 근무하던 때의 모습.

단지 새로운 MD 프로그램을 기다려야 되는 순서입니다. 유럽 개념의 MD인 ALTBMD(Active Layered Theatre Ballistic Missile Defence)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체코는 ALTBMD에 대한 확고한 지지자로서 어떤 통제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를 할 것이며, 이 세계에서 어떤 체제나 권력이 체코나 우방 국가들을 상대로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논리적 행동

MD를 이야기할 때의 '적(敵)'은 어떤 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오늘은 친구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적을 지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 기술이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적의 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반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한 나라를 지정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10년이 지나서 기술이 개발된 이후 누구나 어디선가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대화는 참 어려운 대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련의 통제 밑에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긴 분함 때문에 러시아의 반응을 걱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부와 동부의 구분은 없어졌고 러시아는 이제 소련이 아닙니다. 이제는 적이 누구인지를 지적하는 것보다 기술이 있는지 없

는지가 문제입니다.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누구든지, 또 어디서든지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적이 국가인 경우도 드물어지며 테러범들의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논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동유럽 8개국 이 바르샤바에 모여서 결성한 군사조약)로 유럽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동유럽은 냉전 해체 후 NATO 체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유럽은 EU 및 NATO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코는 NATO와 EU의 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체코는 회원 국가로서 이 조직들과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또한 우리는 NATO 정책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1999년부터 회원이었습니다. 본래는 미국과 다른 회원 국가들과 쌍방 혹은 3개 국가 간의 개념이었죠. 예를 들면 미국-체코, 미국-폴란드, 미국-체코-폴란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바마 정부의 개념은 국제기구의 협력을 추구하는 NATO나 유럽의 개념입니다. 많은 국가들 간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되건 미사일 방어 체제는 설립돼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체코는 다른 NATO 작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세계적

으로 많은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해 왔습니다. UN 혹은 EU 또는 NATO 작전들이지요. 지난 20년을 뒤돌아보면 체코는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앙골라, 콩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UN 작전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은 인원을 투입한 작전은 발칸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 명의 체코 군인들과 군 관계자들도 코소보와 보스니아에 펼쳐진 UN-EU-NATO 작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라크에도 많은 관계자들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군 병원입니다. 아프간의 안정을 찾는 데에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백 명의 관계자들이 아프간에서 다양한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역재건팀(PRT)도 아프간의 로가(Logar)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아프간에는 체코의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도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프간의 안정은 세계에서 아주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프간은 지난 70년 동안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 나라이고, 체코는 역사적으로 아프간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체코가 공산당이었고 아프간도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코는 세계2차대전 직후 카불에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를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사실은 1

인당 GDP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자료를 봐도 한국과 체코는 옆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GDP는 어떻게 자료를 뽑건 1만8,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참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대전 때 체코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1000만 명인 나라가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처럼 글로벌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협력과 참여를 했듯이 한국과 다양한 면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지역재건팀이 아프간에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같은 팀을 아프간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먼 관계지만, 세계적으로는 여러 곳에선 한국과 체코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입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는 한국에게 특

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공산당 시기에 체코에서 공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곳에서 같은 역할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도 한국처럼 인도주의와 개발상의 지원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의 아프리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등 세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체코도,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민주주의와 오늘의 나는 벨벳혁명의 결과

프리하에서 일어난 '벨벳혁명'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코와 대사님에게 있어 벨벳 혁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야로슬라브 울사 대사(가운데)가 지난 1999년 노먼 시에라리온 육군참모총장(왼쪽)과 함께 체코 유엔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체코를 방문한 한승수 총리(오른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한 야로슬라브 올샤 대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벨벳혁명은 체코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벨벳혁명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벨벳혁명이 없었다면) 서울에는 사회주의의 체코대사관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산주의의 붕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비극이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 할아버지도 공산당 정권 시기에 감옥에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968년에 대학교서 테모

체코 소개

- 국명: 체코 공화국 (Czech Republic)
- 면적: 78,864 sq km
- 인구: 1,030만 명 (증가율 0.5%)
- 수도: 프라하 (Prague, 인구 120만 명)
- 인종: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 언어: 체코어
- 종교: 로마가톨릭교 40%, 개신교 10%
- 정체: 의회 민주주의
- 초대 대통령: 바츨라프 하벨
- 현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는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인접해 있다. 서부 보헤미아(Bohemia)와 동부 모라비아(Moravia)로 이루어진다. 모라비아 서쪽의 일부는 실레시아(Silesia)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지역이며, 나머지는 현재의 폴란드이다. 체코의 수도이자 보헤미아 수도인 프라하는 블타바강(Vltava)과 라베강(Labe)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체코는 산, 완만한 고원과, 저지대, 동굴, 협곡, 넓은 평원, 습지, 호수, 연못, 댐 등 정말 아름답고 다채로운 자연을 자랑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기오염과 산성비 오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19세기 무분별한 산업화의 영향이다. 경작을 위해 수세기에 걸쳐 나무를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1/3은 여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의 숲은 대부분 경작이 불가능한 산악 지역에 있다. 수목 한계선(1400m) 이상으로는 초원, 관목림, 지의류 등이 있다. 곰, 늑대, 스라소니와 그 외 야생고양이, 마모트, 수달, 담비, 밍크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숲과 습지대에는 꿩, 자고, 오리, 야생귀뚜라미 등 사냥조류들이 서식하는데, 이들은 주로 사

냥감이다. 독수리, 콘돌, 물수리, 황새, 느시, 뇌조 등도 드물게 눈에 띈다. 체코의 대부분 지역은 습기 많은 대륙성 기후이므로 여름엔 따뜻하고 비가 많으며, 겨울엔 춥고 눈이 많다. 기온 변화는 완만한 편이다. 가장 더운 달은 7월이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이다. 12월에서 2월까지의 저지대도 영하로 떨어지고 산악지방은 정도가 더 심하다. 사실상 '건기(乾期)'라는 것은 없다. 갑작스런 천동번개로 무더운 여름이 사라지기도 한다. 겨울에는 40일에서 100일정도 눈이 내리고(산간지방은 130일 정도), 저지대는 안개까지 낀다. 체코인은 꾸밈없고, 온순한 사람들로, 작은 나라치고는 놀라울 만큼 광범위한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모습을 갖고 있다.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에서 폴란드인과 헝가리아인까지 다양하다. 자유로운 모습에서 엄격한 전통적인 모습, 또 세계화된 사고방식에서 국수주의까지 존재한다. 가장 큰 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이고, 1991년, 체코인 중 40%도 체안 되는 수가 가톨릭교도라고 말했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에게도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나라, 자녀들과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나라, 연인과의 낭만적인 여행이나 사업상 미팅 장소로 적격인 나라. 체코 공화국을 수식하는 표현들이다. 체코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나라이기도 하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풍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체코에는 수많은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가 있으며 이는 프라하뿐만 아니라 체코의 다른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체코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대 도시, 성, 성당과 수도원으로 장식한 나라라는 말이 무척 잘 어울린다. 체코의 뛰어난 문화유산 중 12개의 유적지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이 같은 많은 문화유산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체코다.

단체와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외교관은 절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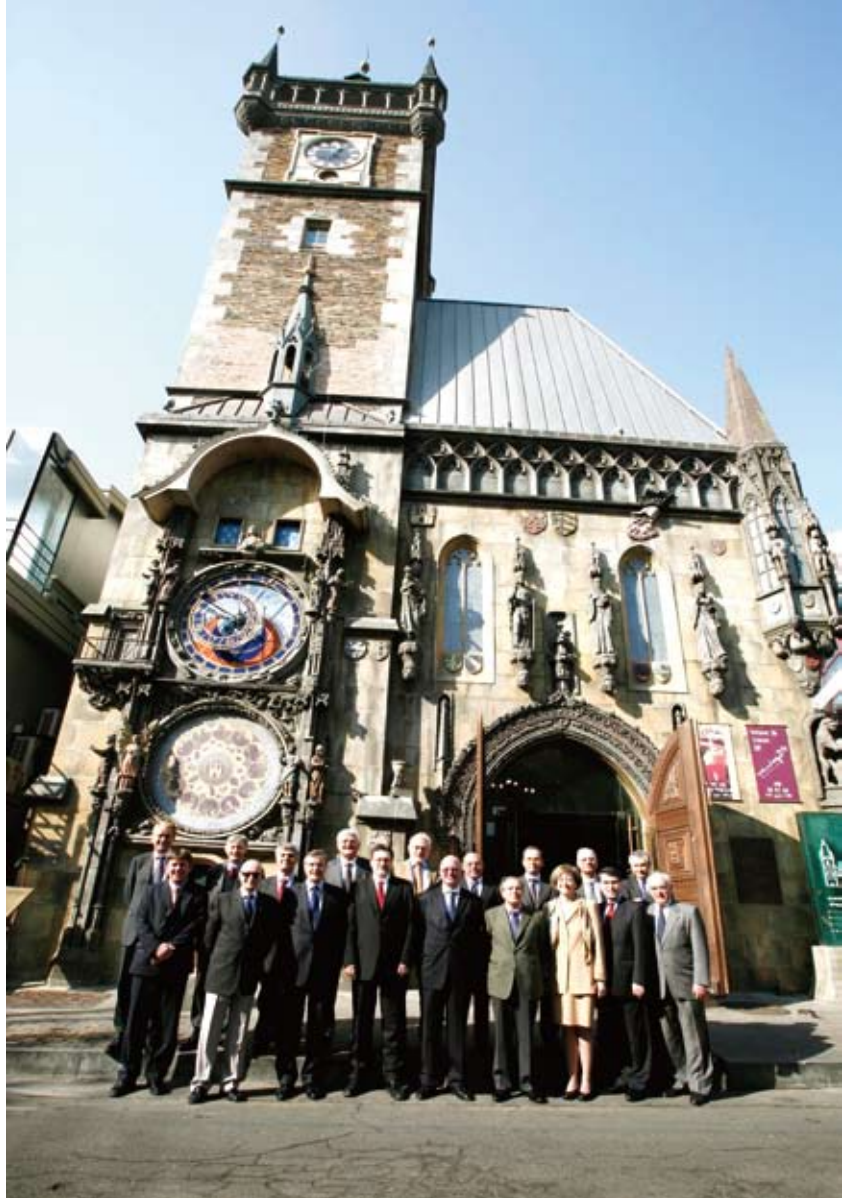
외교관이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서점에서 책을 팔거나 사서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민주주의 국가나 공산당 정권의 현실입니다. 직업이 계층별로 미리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친구들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코 대사들도 한때는 청소부나 서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필을 보니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난해 주한체코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외무부에 근무할 당시 무기수출 및 군과 민간 겸용 물품 관련 체코사절단 대표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하거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갈라지고 1993년에 체코가 설립되면서 저는 외무부에 무기수출 통제 체제를 설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체코는 과거처럼 오늘날에도 중대한 무기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수출에 대한 규제는 엄격해야 했지만 실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팀은 통상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야로슬라브 올사 대사(앞줄 왼쪽 네 번째)가 체코공화국이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기념해 2009년 1월 28일 서울 주재 20개 EU 국가들과 유럽연합대표부 대사들과 공관장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다. 사진은 서울 홍익대 인근의 체코 레스토랑인 캐슬프라하(www.castlepraha.co.kr)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법과 규정을 준비하고 무기를 매매하는 업체들을 통제하고 무기나 관련된 이중적 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CoCOM(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바세나르협정(WA, Wassenaar Arrangement, 94년 3월 새로운 체제 설립을 목표로 발전적으로 해체한 구(舊) CoCOM을 대체해 지난 96년 7월 정식 설

립했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를 말함. 정식 명칭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뜻함) 등과 같은 국제단체를 가입해 이중용도 물품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고슬라비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통해 유고슬라비아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UN의 수출금지 조치를 따르기 위해 체코 무기가 못 들어가게 통제 수단이 필요했습니

다. 당시에 처음으로 이에 대한 법과 규정을 설립했는데, 이후 조금 수정을 했을 뿐 대부분의 법과 규정들은 오늘날의 체제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마무리된 후 저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옮겨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3년을 일했습니다.

다인종국가지만 민간 갈등은 없다

체코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모라비아인 순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코인은 총인구의 81.2%, 슬로바키아인은 총인구의 3.1%, 모라비아인은 총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이나 인종 또는 민족에 따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체코는 어떻습니까?

한국처럼 민족이 동질적인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유럽은 전체적으로 다인종 대륙입니다. 그래서 체코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들 간의 갈등

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통계 자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체코에 ‘모라비아인’이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체코의 일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사람들)입니다(모라비아의 뿌리는 현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부인 보헤미아(Bohemia)에서 중세 후기, 기독교의 급진적인 운동들에 뿌리를 두고 있음).

제주나 부산처럼 지역적 자부심이고 모라비아인 사람이라고 일컫지만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는 체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체코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현재 체코에 8만여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지만, 아시아 주민들 중에는 베트남이 제일 큼니다. 고위 공무원을 하는 베트남 민족도 있습니다. 또 체코어로 작품을 쓰는 베트남 작가도 있고 모델, 배우 등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베트남 2세대들이

며, 우리는 이들을 모두 체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체코 국적을 갖고 있지 만 베트남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한국인도 많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대략 2000명 이하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 몇 명은 체코 사람이라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반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민을 온 경우가 많습니다. 체코에서 몇 십 년을 살면서 체코를 고향으로 삼은 거죠. 중앙유럽은 용광로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긴밀한 접촉과 미운 정 고운 정 관계로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유명한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분은 로고를 디자인 하고 서울, 프라하와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체코 축구팀에서 뛰는 한국 선수도



있고 한국 아이스하키 팀에 체코 선수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중에 체코에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주로 나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

1990년에 SF 월간지인 <이카리>(IKARIE)를 창간하시고 부편집국장까지 역임하시는 등 문학과 매체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잡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1963년에 만든 영화 <이카리 XB-1>은 SF의 고전인데요. 2163년을 배경으로 남녀 승무원 40명이 우주선 IKARIE XB-1을 타고 우주를 향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SF 시각에서 생각해볼 때 2100년 이후에는 우주여행이 일상화될 수 있을까요?

영화는 아닙니다. 책을 출판했고 잡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잡지는 유명한 영화 <IKARIE>의 이름을 따다 지은 겁니다. 저는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는 것은 필연

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주를 탐사하고 생겨나는 곳, 예를 들면, 화성과 같은 곳을 개척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우주 정거장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지요. 이득을 보기 이전에 경제와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하니 까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 발전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1983년에 스타워즈 프로그램을 창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에 아폴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미국에게는 이익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때 발전시켜서 생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이지요.

공상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4~6년 앞을 보고, 과학기술자는 10년에서 20년 앞을 봅니다. 하지만 공상과학자들은 몇 세기를

앞서 봅니다. 우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잡지 <IKARIE>와 책을 보여주며) 잡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잡지입니다. 현재 200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체코 군사 내용인 공상 과학 소설입니다. 미래의 전쟁 내용입니다.

공상 과학 애니메이션은 현재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2009년에 부천 국제 영화제에서 체코 공상과학 영화를 선정해 출품했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은 인기가 별로 없지만 체코에서는 공상과학 만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상과학 만화가가 있나요?

나이가 70세인 한 분이 계십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아주 성공했던 작가지요. 아주 좋은 만화가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특별히 유명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체코 만화 전시회입니다. 얼마 전에 프라하에서 만화 전시회를 열었고,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열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로 바뀐 후 재능 발휘

대사님은 실제 나이보다 아주 젊어 보입니다.

저는 젊지 않습니다. 전 10년 전에 대사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외교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25~30세인 사람들이 외교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10년이 지난 후 체코 외교부를 이끌던 사람들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35~40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다수였고, 저는 36세에 처음으로 대사가 됐습니다.

중간 세대는 주로 공산당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치적 변화가 생기면서 정치생활을 할 수 있는 중간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젊은 층이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외교관들보다 10~20년 일찍 외교관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재 외교관이나 대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보면 지질학자, 농업전문가 혹은 공학기술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예전 정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요, 주류에서 떨어져서 활동했던 사

람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한 유명한 체코 외교관은 한때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이 분은 슬로바키아 외상이었고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1980년대에 유명한 영화배우였지만 정치적 변화가 생겨서 이 분도 총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죠. 전에는 숨겨왔던 재능이 드러나 외교관이나 외상이 됐어요.

이 시기의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 정권에 어떤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고 관심사도 숨겨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상황이 바뀐 후에는 외교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숨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 상당히 춥습니다. 한국은 체코와 날씨가 비슷합니까?

여기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지난 주 날씨 또한 좋았습니다. 체코는 보통 서울과 기온이 거의 똑같습니다. 대략 영하 5

도 정도죠. 하지만 일 년에 한 번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한 두 번은 폭설이 있어요.

체코도 날씨에 따라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중지 상태가 됩니다. 현재 체코는 그 중지 상태입니다. 1미터가 넘는 눈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지 상태가 오는 것을 알지만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강과 양쪽에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눈이 와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어려움이 많아요. 창문을 열고 눈이 온 것을 보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월요일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폭설이 내려 있더군요. 그래서 비서에게 연락해서 출근을 안 했습니다. 차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체코와 한국은 방어 협력국가

끝으로 방위산업분야에서의 한국과 체코 양국 협력에 대해 해주실 말씀은?

한 가지 얘기 못한 것이 있네요. 체코와 한국의 방어 협력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코의 전자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군 공항이 체코의 레이더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배달됐고 현재 대한민국 군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한국 해군도 체코 레이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협력의 상징입니다. 김해로 레이더가 배달된 것이 3개월 전입니다. 이게 바로 협력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사실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체코는 1950년 때부터 레이더 기술을 생산하는 선두국가였습니다. 타마라(Tamara)와 베라(VERA)라는 제품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 제품들의 발상은 공산

타마라(Tamara)와 베라(VERA)

타마라(Tamara)는 체코의 테슬라 파두비체(Tesla-Pardubice)가 개발한 레이더다. 타마라는 빔을 발사하지 않고 목표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자파를 오직 수신만 해서 분석하는 수동형(Passive) 레이더다. 타마라가 F117이나 B-2 같은 스텔스 폭격기도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는 타마라의 후속 모델인 베라(VERA)를 개발해 판매했는데, 이것도 역시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베라는 극초단파와 같은 펄스를 쏘아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해 흐릿하게 무엇인가 있는 것을 추적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항공기 자체에서 나오는 펄스, 즉 미세한 진동이나 전파, 소리 등을 잡은 후 분석해서 알아내는 방식이다. 또 장비 자체가 추적이 불가능한 수동 방식이기도 하다. 베라는 동시에 200개의 항공기 식별이 가능하고 정확한 위치와 고도를 알 수 있다.

스파이 정찰기들이 민간항공기 위나 아래에 붙어서 같이 움직이면 기존의 레이더에는 하나로 보인다. 그런데 이 체코의 장비들은 정확하게 두 개의 비행체를 보여준다. 침투하는 적기의 기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파키스탄, 중국, 말레이시아, 이집트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테슬라 파두비체의 자회사인 ERA에 VERA를 주문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2004년 중국으로 가는 것이 무산되기도 했다. 베라는 미국, 에스 토니아에 수출된 바 있다.



2009년 10월 15일 김해레이더기지 전력화 기념식에서 체코 및 한국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 시기에 만들어졌고 목표는 새로운 형식의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고 이후 미국에서 개발한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 항공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스텔스 항공기도 체코 레이더로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로 빔줄기를 쏘아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용해 항공기를 보는 기술입니다. 스텔스기는 빔줄기를 반영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항공기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보통 레이더가 발견할 수 없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 레이더는 다른 기술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체코 레이더는 스텔스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빔줄기를 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공중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어떤 스텔스 항공기라고 해도 예외 없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내보내기 마련입니다. 체코 레이더는 그 통신신호를 찾아냅니다.

이것을 영어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논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보통 레이더와 달리 체코 레이더는 빔줄기를 쏘지 않고 항공기가 통신을 몇 초만이라도 보내면 그 통신을 발견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잡아 항공기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수입했습니까?

이제는 미국 회사가 레이더를 만들었던 체코 회사의 주인입니다. 미국 투자자가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죠.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